# 서울대 "학생부 영향력 논술 2배"

## 올 입시수능 분석 "내년엔 모의고사로 실질반영률 확정"

올해 1월 치러진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이 논술에 비해 2배 이상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입학관리본부는 17일 "2006학년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점수 분포를 통한 전형 요소별 영향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부 성적이 논술보다 2배 이상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008학년도 전형 논란과 관련, 내년 3월 모의고사를 실시해 논술의 실질 반영률을 확정키로 했다. 이럴 경우 논술의 실질 반영률은 서울대가 밝힌 명목 반영률 3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모의논술을 실시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해서 실질 반영률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06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수리·외국어(영어) 3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전체 응시자의 0.85%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2학기 고교 1학년의 학생부에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과목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0.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대는 학생부의 경우 420점 만점에 396점을 기본점수로 주기 때문에 실질반영률은 5.7%이며, 논술의 경우 만점의 70~80%대를 기본점수로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납품비리' 前교장 등 3명 구인장 발부

### 검찰, S중 박前교장 보강수사 지시

전남경찰청은 17일 학교 교구와 기자재 납품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본보 9월16일 3면〉 광주 W중 전 교장 김모(55)씨와 같은 학교 전 행정실장 윤모(여·46)씨, 광주 S중 전 행정실장 윤모(51)씨 등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들을 강제 소환키로 했다.

광주지방법원은 18일 오후 3시 이들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광주 S중 박모(59) 전 교장의 경우 "행정실장으로부터 리베이트 내용을 보고받은 뒤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며, 뒷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일관된 진술을 함에 따라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W중 김 교장과 윤 행정실장을 지난 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8월29일 광주 S중 박 교장과 윤 행정실장을 직위해제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사주설' Vs '결백설'

### ■학교 납품비리 미스테리

신설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부고발자'인 광주 S중 박모(59) 전 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하면서 박 전 교장의 폭로배경을 놓고 숱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은 결백한 만큼 절대로 사법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폭로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놓고 해석도 분분하다.

◇박 전 교장, 왜 폭로했나=S중 비리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것은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로 알려지고 있다. 박 전 교장은 전교조 광주지부 회원이었으며, 박 전 교장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또 다른 S중 김모(59) 교장도 전교조 출신이다. 이 때문에 박 전 교장이 사전에 누군가와 협의해 폭로 여부를 결정했으며, 오는 10월 치러질

### 폭로 배경 관심 집중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된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 전 교장은 이와 관련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나는 교육감 선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쪽지와 근무일지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다"고 강력 부인했다.

◇김 교장, 왜 박 전 교장 거들었나=김 교장은 박 전 교장이 직위해제 당한 직후인 지난 8월30일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청렴상을 주어야할 S중 박 교장, 직위해제가 웬 말인가?'라는 글을 올려 시 교육청의 조치를 비난했었다.

김 교장은 당시 "신식학교가 생긴 100여 년 역사 이래 학교관련 부패 고리의 구조적 모순을 처음 밝혀낸 박 교장은 마땅히 국가로부터 모범공무원상, 청렴상을 받아야 할 독보적인 존재다"고 박 전 교장을 치켜세웠다.

김 교장은 박 전 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지난 14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 김·박 무슨 말 오갔나

"나는 지금도 박 전 교장이 결백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박 전 교장은 같은 학교 윤모(51) 전 행정실장이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 돌려주라고 했으며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윤 전 실장은 박 전 교장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받은 돈을 박 전 교장과 반반씩 나눠가졌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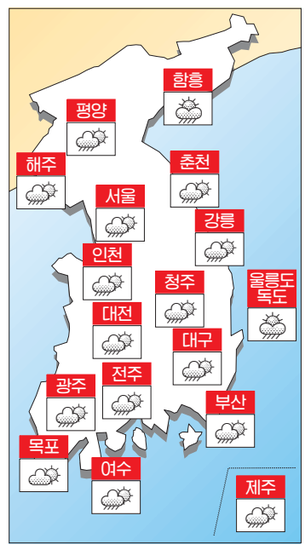
경찰 관계자는 "윤 전 실장이 박 전 교장과의 사전 교감 없이 단독으로 리베이트 수수 업체명과 액수를 적어 보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고, 윤 전 실장이 리베이트를 박 교장과 반반씩 나눠가졌다고 계속 주장하는 만큼 박 전 교장에게 돈이 건네졌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hwangtae@

## 태풍은 지나가고…

태풍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낮에 개겠다.

**9월 18일** (윤 7월 26일) ◇전국날씨

| | | |
|---|---|---|
| 광 주 | 비온뒤 갬 | 17~23℃ |
| 목 포 | 흐린뒤 갬 | 17~23℃ |
| 여 수 | 비온뒤 갬 | 19~23℃ |
| 완 도 | 비온뒤 갬 | 17~23℃ |
| 구 례 | 비온뒤 갬 | 17~24℃ |
| 해 남 | 비온뒤 갬 | 17~23℃ |
| 장 흥 | 비온뒤 갬 | 17~23℃ |
| 고 흥 | 비온뒤 갬 | 18~23℃ |
| 순 천 | 비온뒤 갬 | 17~24℃ |
| 영 광 | 흐린뒤 갬 | 17~24℃ |
| 진 도 | 비온뒤 갬 | 18~22℃ |
| 전 주 | 비온뒤 갬 | 17~23℃ |
| 남 원 | 비온뒤 갬 | 16~23℃ |
| 정 읍 | 비온뒤 갬 | 16~23℃ |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2.0~4.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2.0~4.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2.0~6.0m

목 포 밀물 〈 11:37 --:-- 썰물 〈 05:16 17:06
여 수 밀물 〈 06:57 19:24 썰물 〈 01:11 12:49

▲해뜸 06:17 ▲해짐 18:36 ▲달뜸 01:58 ▲달짐 16:4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19(화) | 20(수) | 21(목) | 22(금) | 23(토) | 24(일)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16/26 | 17/26 | 17/24 | 16/24 | 16/26 | 16/27 |

**"지하철 환승 자전거 타세요"**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는 16일 광주시 서구 마륵동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에너지관리공단 전남지사, 메트로엔젤(지하철 도우미) 및 시민 200여 명과 함께 '지하철 환승 자전거 발대식'을 가졌다. 100대의 지하철 환승 자전거는 광주시내 각 지하철 역사에 분산 배치돼 이용하는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지역 응급의료기관 상당수 '기준 미달'

## 복지부, 광주·전남 61곳 평가
## "시설·인력·장비 부족"

광주·전남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시설·인력·장비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과 전문응급의료센터 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1곳, 지역응급의료기관 47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 중 법정 기준을 채운 곳은 58곳 중 29곳에 불과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광주 첨단종합병원·하남성심병원·목포중앙병원·화순전남대병원 등은 A등급을 받았지만 광주기독병원·광주남광병원·여천전남병원·고흥종합병원·해남병원 등은 C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광주현대병원을 비롯한 23개 병원만이 조건을 충족했고 광주삼성병원을 비롯한 24개 병원이 법정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조선대병원(B등급·전문응급의료센터), 전남대병원(A등급·권역응급의료센터), 목포한국병원(A등급·〃) 등이 법정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인력(40%), 시설(30%), 장비(30%)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A·B·C·D 등급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지역 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 등 급 | 기 관 명 |
|---|---|
| A(100점 이상) | 광주: 첨단종합병원, 하남성심병원<br>전남: 목포중앙병원, 화순전남대병원 |
| B(80점 이상) | 전남: 순천성가롤로병원<br>순천중앙병원 |
| C(60점 이상) | 광주: 기독병원, 남광병원<br>전남: 여천전남병원 |
| D(60점 미만) | 전남: 고흥종합병원, 해남병원 |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 등 급 | 기 관 명 |
|---|---|
| A(100점 이상) | 광주: 보훈병원, 한국병원, 현대병원<br>전남: 목포기독병원, 목포우리병원, 목포전남병원, 순천한국병원, 여수성심병원, 여수전남병원 |
| B(80점 이상) | 광주: 서남대학교병원, 광주상무병원, 호남병원, 미래로 21병원<br>전남: 나주종합병원, 담양사랑병원, 무안병원, 보성아산병원, 순천병원, 순천의료원, 영광병원, 완도대성병원, 해남우석병원, 해남한국병원 |
| C(60점 이상) | 광주: 광주병원, 광수삼성병원, 광주씨티병원, 광주일곡병원, 동아병원, 송정사랑병원, 신가병원<br>전남: 광양사랑병원, 나주중앙병원, 목포의료원, 영산포제일병원, 오병원, 장성병원, 장흥병원, 제일병원 |
| D(60점 미만) | 광주: 세명병원<br>전남: 구례병원, 녹동현대병원, 벌교삼성병원, 순천금당병원, 영광기독병원, 현대병원, 화순고려병원, 화순중앙병원 |

# 신세대 "결혼도 투자다"

## 새로운 계획 실현 위한 수단으로 생각

### '2534세대' 400명 '웨딩트렌드' 조사

디지털세대들은 결혼을 투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기획은 5~7월 '2534세대'(현재 25~34세인 소비자) 미혼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시대의 웨딩 트렌드'를 17일 발표했다.

◇결혼관=조사대상자의 78%는 '결혼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답해 이들에게 결혼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들은 결혼은 일종의 투자(62.1%)이자 노후준비의 시작(84.4%)이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신랑·신부가 만족하는 결혼을 해야한다(92%)고 생각한다.

◇만남=이성친구를 소개받으면 조건을 살피고(70.6%)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장소를 자주 찾는다(46.6%). 능력만 있으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55.8%).

◇결혼 후=이들은 결혼생활에도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90.6%),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대까지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6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부부가 이혼하면?
## 男 "여유" 女 "궁핍"

부부가 이혼하면 남성은 대체로 여유롭게 생활하지만 여성은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는 최근 재혼 희망자 516명(남녀 각 258명)을 대상으로 '이혼 후의 생활수준'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의 37.2%가 '여유롭다'고 답한 반면 여성의 39.1%는 '궁핍하다'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혼 뒤 생활이 '여유롭다'고 답한 여성은 8.7%에 불과했다.

'이혼시 자신에게 분할된 재산의 비중'에 대해 남성은 ▲절반(23.5%) ▲70%(17.6%)의 순이었고, 여성은 ▲10% 이하(31.4%) ▲50%(27.3%)의 순으로 대조를 보였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